

BNK와 타이타닉호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얼음 바다가 삼켜버린 배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한 도시를 출항했다. 선장과 승무원, 승객을 합쳐서 약 2200여명이 배에 탔다. 프랑스의 웰부르와 아일랜드의 퀸스타운을 거쳐 미국 뉴욕으로 향하다가 4월 14일 밤 갑자기 빙산에 충돌해 침몰한다. 타이타닉호 침몰 희생자 수 집계는 다양하지만 영국 상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1500여명에 달한다. 구명보트 등으로 탈출한 생존자가 700여명에 불과한 역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다.

최근 BNK금융도 마치 타이타닉호 같다. 지방금융지주 1등으로 더 큰 꿈을 향해 향하고 있었지만 선장이 중도에 하차했다. 임기 5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가족의 의혹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진 것이다. 그러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차기 회장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내외부에서 수 많은 도전자가 뛰고 있다는 후문이다. 후보군은 자회사 대표 9명 외에 자문기관 2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

후보가 대상이다. 외부 후보는 '정치'와 '관치'란 동양철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BNK는 지방금융지주 1등이다. 정치적 인연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언감생심 욕심을 내다간 탈이 난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는 아예 '염치'가 없는 사람도 있다. 과거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포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BNK를 알아봐 봤다간 큰 코 다친다. BNK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3분기 기준 159조 9000억원 규모다. 김지완 전 회장이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 키우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만 자산이 52조원이나 늘어났다. 은행, 증권, 캐피탈 등 포트폴리오도 탄탄해진 BNK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회장 자리를 차지할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내부 출신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려던 BNK가 항해 중에 빙산을 만나 건 반대편에 선 누군가의 욕심 때문이다.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더 높은 곳을 봤다. 만족할 줄 몰랐다. 최고 경영자가 내편이 아닌 사람도 안고 가야 한다며 끌어안았음을 몰랐던 것일까. 내부문제에 '정치'를 빌렸다는 의혹도 있다. 내가 안되면 같이 침몰하자고 맘 먹은 것일까. 지금과 같은 태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하수

다. 알고도 그랬다면 조직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 행동이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 조직은 나몰라라 한 셈이다. 당초 예상된 차기 회장 승계 구도에서 '반란'을 꿈꿨던 사람들의 결말은 쓸쓸한 퇴장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초호화선으로 불렸지만 한밤중에 빙산을 만나 일순간에 침몰한다. 부와 명예는 물론 사랑도 검은 바다에서 슬픈 운명을 맞는다. BNK의 운명도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다. 내부로부터 시작된 '불장난'이 '큰 불'로 번졌다. 누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BNK가 달라진다.

다시 외풍이 불기 시작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의 마지막 장면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BNK금융 직원들도 누가 차기 회장이 될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극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차기 회장은 내부는 물론 외부 인사까지 도전한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BNK호의 키를 쥐고 있다.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순리와 명분, 능력에 따라 차기 회장을 가려내야 한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태풍을 만난 BNK호가 침몰하지 않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한파의 한 가운데서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



김지수첩
원 관 희 (자본시장부)

금리인상에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이후 자금경색이 겹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구조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PF를 펼쳤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수익성 없는 사업부를 통폐합하며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이 먼저 칼을 빼 들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까지 신입사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1일 법인영업부와 리서치사업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

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지난해 증권사들은 부동산 PF사업으로 커다란 수익을 손쉽게 올렸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등 삼패인을 터뜨리기에 바빴다.

일부에서는 증권사들이 본연의 사업보다는 무리하게 부동산 PF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대형사는 2020년 말과 올해 3월 말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PF익스포저(위험노출 투자액)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중소형사는 2조8000억원 늘며 부동산PF에 대한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같은 우려의 소리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올들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이 계속해서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연속으로 단행한 데다 호황이었던 부동산마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발 부동산 금융 시장의 한파는 결국 중소 증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

정부와 대형증권사들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로 한번 얼어붙은 시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중소증권사들은 상반기에 펼쳤던 성과급 잔치는 잊고 이제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을 내세워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 호황에 춤췄던 근시안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직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먼저 출선수범해서 책임지고 경영난을 돌파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wkh@

오늘의 운세 12월 2일 (음 11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치우치지 말고 가족 간 화목을 우선시. 48년생 기회가 있으면 망설이지 마라. 60년생 금전과 사람이 따르는 하루. 72년생 일이 잘 풀려도 의외의 복병은 있다. 84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한 일을 마무리.
- 소** 37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있어 해결. 49년생 중심을 잘 잡아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61년생 남쪽으로 출장 수가 있다. 73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연인에게 상처를 준다. 85년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돕자.
- 호랑이** 38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하고 성실로 극복. 50년생 부러움을 살만한 기쁜 일이 생긴다. 6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공연한 방황인가. 74년생 인맥이 도움을 주어 성사된다. 86년생 자손탄생으로 가족이 활기차고 화목이 넘친다.
- 토끼** 39년생 동분주해봐야 이득이 없으나 그래도 움직여라. 51년생 조상의 한이 서리면 슬픈 일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63년생 형편과 능력에 맞춰서 행동. 75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친다. 87년생 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 염** 40년생 남의 말만 듣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52년생 비 눈 뒤에 땅이 굽는다. 64년생 부부간에 견제하는 늘 있는 것이 이혼이 웬 말인가. 76년생 소파와의 만남이 있을 듯. 88년생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돌아도 보자.
- 뱀** 41년생 이웃 간에 돕는 것이 인자상정. 53년생 동료의 작은 실수는 언젠가는 나도 만들 수 있다. 65년생 목이 마르면 물을 파는 노력을. 77년생 이성 간에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마라. 89년생 차근차근 자성과 따뜻한 감성을 찾도록.
- 말** 42년생 사귀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54년생 양손에 떡을 들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66년생 어려운 일은 스승님의 도움으로 극복. 78년생 운전 때에 늘 양보심을 갖도록 해야. 90년생 내 고집만 피우면 식구들도 외면.
- 양** 43년생 산에 들에 벌 내비가 많으니 유혹도 발생. 55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물건 잘 챙겨라. 67년생 상사의 도움으로 이득이 발생하니 감사. 79년생 여행을 바라지 않으면 운이 온다. 91년생 부모님의 도움으로 재물 어려움이 극복.
- 원숭이** 44년생 교양을 쌓는 것은 취미와는 다른 고차원. 56년생 사색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자. 68년생 자녀에게 정서적 배려는 나한테서 나오니 자성을 갖추자. 80년생 대기업에 취직 수가 있다. 92년생 경쟁에서 지는 것이 서글프다.
- 닭** 45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57년생 먼저 간 배우자의 슬픈 일은 잊어야 한다. 69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이다. 81년생 유아독존적 이기심을 버려라. 93년생 자녀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 개** 46년생 언제나 오늘 준비를 꼼꼼히 해야 내일이 편하다. 58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0년생 길을 나서려는데 비가 오니 우산이 없다. 82년생 목표를 정하여 우선 추진하자. 94년생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니 기다려라.
- 돼지** 47년생 친구의 부음을 듣는다. 59년생 다름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상책. 71년생 성공이 가장 좋은 교훈이다. 83년생 선봉에 나서다가 시기 질투를 받으나 그래도 도전. 95년생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함을 인식.

김상회의四季 우리가 만든 이상기후

기후 이변에 사막의 나라들이 연 평균 기온이 30도를 능가했다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덥기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에 눈이 내렸다거나 반대로 혹한으로 유명한 북극 툰드라의 눈과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만성이 되어간다. 그러나 기후 문제만큼은 무뎌져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이상 기후와 관련된 현상들이 보도될 때마다 환경문제를 내 문제로 보기보다는 아직은 나랑은 관계없는 문제로 치부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클린 환경을 위해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과격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 얼마 전 독일의 기후활동가들이 프랑스의 유명화가인 모네의 작품에 으깬 감자를 던지는 시위를 했다. 또 영국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 작품인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일도 있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기후단체인 '울티마 제네라지오네'는 소속 활동가들 4명이 보나파르테 궁전 미술관에 전시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씨 뿌리는 사람'에 역시 야채수프를 끼얹었다. 울티마 제네라지오네(Ultima Generazione)는 번역하면 '마지막 세대'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지 한가하게 예술작품 그림을 감상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들의 주장 표현방법이 과격하고 당연히 응원받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로서는 그만큼 기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게다. 이상 기후는 동물도 벌레도 아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만든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사자성어가 있듯이 그 해결책 역시 인간들이 찾아야 한다. 그들의 일부 목소리라면 치부할일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 | | | | | | | | |
|---|---|---|---|---|---|---|---|---|
| | 2 | | 9 | 8 | | 7 | | |
| 4 | | | 1 | | 7 | | | 3 |
| | | | | | | | | |
| | 7 | 1 | | | | 9 | 3 | |
| | | 8 | | 2 | | 5 | | |
| | 4 | 3 | | | | 2 | 6 | |
| | | | | | | | | |
| 1 | | | 8 | | 3 | | | 9 |
| | 3 | | 2 | | 9 | | | 8 |

| | | | | | | | | |
|---|---|---|---|---|---|---|---|---|
| | | 8 | | 5 | | 1 | | |
| | | | 1 | | 8 | | | |
| 2 | | | | 6 | | | | 9 |
| | 4 | | 3 | | 5 | | | 9 |
| 8 | | 1 | | 4 | | 3 | | 6 |
| | 2 | | 8 | | 6 | | 1 | |
| | | | | | | | | |
| 9 | | | | 8 | | | | 4 |
| | | | | | 5 | | 7 | |
| | | 6 | | 2 | | 7 | | |

정답

| | | | | | | | | |
|---|---|---|---|---|---|---|---|---|
| 1 | 8 | 2 | 6 | 9 | 7 | 4 | 5 | 9 |
| 6 | 7 | 9 | 4 | 8 | 2 | 9 | 1 | |
| 2 | 9 | 4 | 9 | 1 | 7 | 6 | 8 | 2 |
| 8 | 9 | 2 | 1 | 6 | 2 | 4 | 7 | 9 |
| 2 | 1 | 9 | 7 | 8 | 9 | 8 | 9 | 6 |
| 7 | 6 | 9 | 8 | 9 | 1 | 2 | 2 | 2 |
| 9 | 6 | 7 | 2 | 4 | 9 | 2 | 1 | 8 |
| 4 | 2 | 8 | 2 | 9 | 1 | 9 | 6 | 7 |
| 9 | 2 | 1 | 8 | 7 | 6 | 9 | 2 | 4 |

| | | | | | | | | |
|---|---|---|---|---|---|---|---|---|
| 1 | 8 | 2 | 7 | 6 | 9 | 9 | 4 | 8 |
| 2 | 9 | 6 | 2 | 4 | 9 | 7 | 8 | 1 |
| 7 | 4 | 9 | 1 | 8 | 9 | 2 | 2 | 6 |
| 2 | 1 | 7 | 9 | 6 | 8 | 4 | 2 | 9 |
| 9 | 9 | 4 | 2 | 7 | 2 | 1 | 6 | 8 |
| 8 | 6 | 2 | 9 | 1 | 4 | 2 | 7 | 9 |
| 6 | 2 | 8 | 4 | 9 | 7 | 9 | 1 | 2 |
| 9 | 2 | 9 | 8 | 2 | 1 | 6 | 4 | 7 |
| 4 | 7 | 1 | 6 | 9 | 2 | 8 | 9 | 2 |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077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181호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